

[여수엑스포 결정 D-6]

■ 프랑스 현지 시각 26일 오후 7시 BIE 총회 가상 시나리오

피말린 2차 투표 끝 “여수 꼬레!” 파리 낭보



『프랑스 현지 시각 26일 오후 7시, 제142회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열고 있는 파리 ‘팔레 드 콩그레(palais de congres)’ 건물 2층은 터질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총회장을 가득 메운 BIE회원국 대표들과, 한국·모로코·폴란드 등 박람회 유치 후보국 대표단 그리고 BIE 사무국 직원들은 마지막 결정 투표를 남겨두고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국을 결정하기 위해 총회장에 둘러앉은 120개 BIE회원국 대표들은 투표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선언을 기다리며, 탁자 앞에 마련된 투표용 버튼을 묵묵히 바라봤다. 전자식 투표방식에 따라 버튼이 눌러짐과 동시에 전광판에 득표수가 집계되는 만큼, 2년여를 끌어온 3개국 승부는 한순간에 가려지게 되는 셈이다.

투표장 한 쪽에 자리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강부현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한국 대표단 15명은 숨을 죽인 채 BIE회원국 대표들의 손가락을 주시했다. 지난 21일 파리에 도착, 막바지 득표활동에 올인했던 한국 대표단 얼굴에는,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이번 총회에서 현실화될지 바라는 간절한 기대

와 소망이 배어났다. 마침내 장내 마이크를 통해 ‘투표를 시작해주시시오’라는 사회자의 말이 떨어졌다. BIE대표들이 일제히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총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여수와 모로코 탕헤르,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득표집계가 환하게 밝혀졌다.

순간 한국대표단의 입에서 아쉬움 섞인

표 개시를 알리는 사회자의 안내방송이 얼음처럼 차가운 긴장감을 깨뜨렸다. 굳어있던 BIE회원국 대표들의 손가락이 머뭇거리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호라도 받은 듯 전광판이 되살아났다. 박빙이지만, 결과는 한국 여수의 승리. 전광판에 시선을 못박고 있던 한국 대표단은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났다. 두 손을 번쩍 추켜들고 만세를 외치는 한국 대표단의 눈이 속속히 젖어들기 시작했다. 총회장은 ‘여수 꼬레!’를 연호하는 스피커 방송과,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한국대표단 그리고 이들이 부르는 애국가 어울리면서 순식간에 환희의 도가니로 변했다.

가상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이번 BIE총회에서는 이 같은 ‘픽션’이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모로코가 막바지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도 지난달 말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110여 개국에 유치사절단을 파견했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유치위원회, 전남도, 재계 등이 나서 마지막 부동표 확보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



1차서 3분의 2 못넘어 곧바로 재투표 여수 박빙의 승리에 한국 대표단 환호 열자안고 애국가 부르며 기쁨의 눈물

기 때문이다. 유치위도 전반적인 관세분석 보고서에서 ‘막바지까지 방심할 수는 없지만, 경쟁국에 비해 압도적인 정치·경제적 여건과 유치지 등에 힘입어 현재로서는 우리가 다소 우세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신규 가입국 증가 등 유치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판 변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투표가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한 자세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재철 박람회 유치위원장, 그리고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직접 총회장의 단상에 올라 ‘박람회 한국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박람회의 역사가 남긴 것들’ ‘미래, 인류의 위대한 유산’ ‘미리 가본 2012여수세계 박람회’ 등 ‘왜 여수인가’를 납득시킬



지난 6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41차 BIE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이 BIE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여수 박람회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3차원 영상으로 박람회 역사·여수 당위성 알러

“세계 해안·연안 사업에 1억 달러 지원” 공약도

■ 프레젠테이션 뭉담

오는 27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2회 총회에서는 최종 투표를 앞두고 그야말로 마지막 흥보전이 펼쳐진다. 현지시각으로 26일 오후 5시30분부터 30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이 그것이다.

국 표를 확고히 하고, 또 지지국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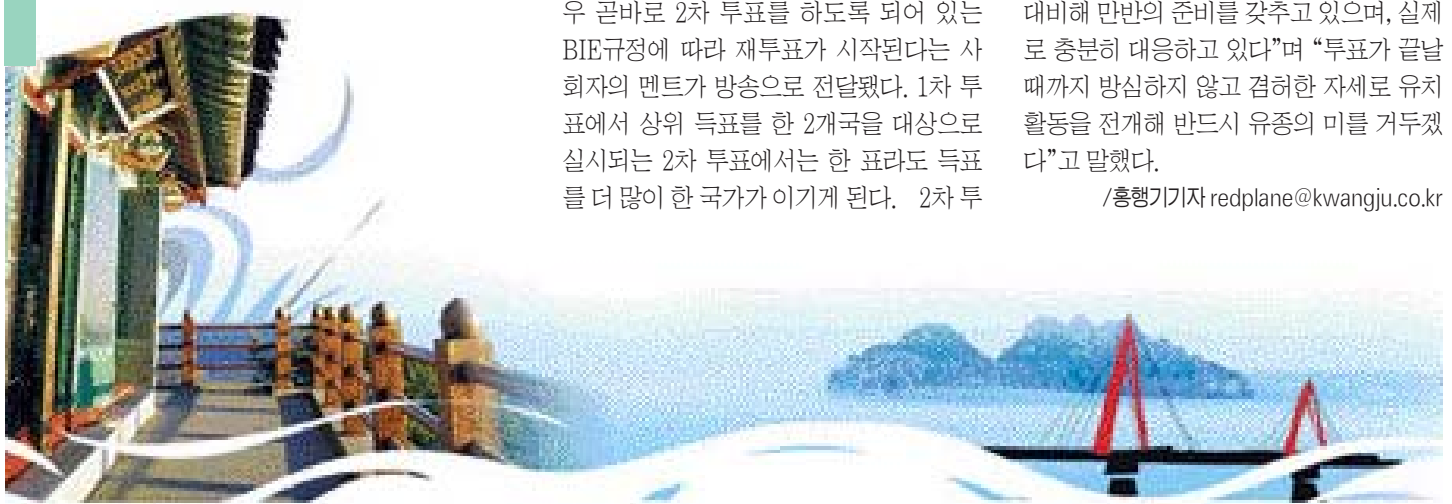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재철 박람회 유치위원장, 그리고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직접 총회장의 단상에 올라 ‘박람회 한국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박람회의 역사가 남긴 것들’ ‘미래, 인류의 위대한 유산’ ‘미리 가본 2012여수세계 박람회’ 등 ‘왜 여수인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3차원 영상으로 제공된다. 전남도립극단도 화려한 공연으로 BIE대표단의 응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재철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몽구 회장은 ‘전세계의 해안과 연안 관련 사업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을 재천명하게 되며, 한덕수 총리도 BIE회원국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공약 이행 그리고 인류 유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약속할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합동법률경제 (합동법률경제) (광주지방법원 앞) ☎433-7799 H.P. 011-1770-3328

LCE타워(주) ☎(02)872-8004, ☎010-7154-6866

첨단월세공인중개사 ☎(02)872-4585 ☎011-604-6205

부광공인중개사 ☎(062)654-4520, 010-2628-1718

특급상가 매매·임대 전대후문 노레량 215㎡ (85평)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가는 사팔불 - (주)옥션코리아

Table with 4 columns: 아파트/빌라, 분양가, 매매가, 최저가

Table with 4 columns: 근린상가/속박상가, 분양가, 매매가, 최저가

Table with 4 columns: 단지/농지/임야/공장, 분양가, 매매가, 최저가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임대 ★첨단대리점 제일은행 빌딩 2층 70평 사무실,병원 직할

첨단중심 상업매매 -첨단대리점 2008년 개업한 약 360평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대세

★임대 -첨단대리점 제일은행 빌딩 2층 70평 사무실,병원 직할

첨단중심 상업매매 -첨단대리점 2008년 개업한 약 360평

전원주택(부지) 전문업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전원주택단지 분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Wellbing Life의 투자자산입니다

특급상가 매매·임대 -전대후문 노레량 215㎡ (85평)

특급상가 매매·임대 -전대후문 노레량 215㎡ (85평)

특급상가 매매·임대 -전대후문 노레량 215㎡ (85평)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가는 사팔불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가는 사팔불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가는 사팔불 - (주)옥션코리아